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플러스

일본 구마모토 개신교 형성과 전개 - 이찬양 목사

신앙의 유산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호정순 은퇴권사

청년마당

노숙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 송도현 청년



www.youngeun.co.kr

9 600424 840427

PASSION

영은, 열정을 더하다

2026 BASIC+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소나기가 지나간 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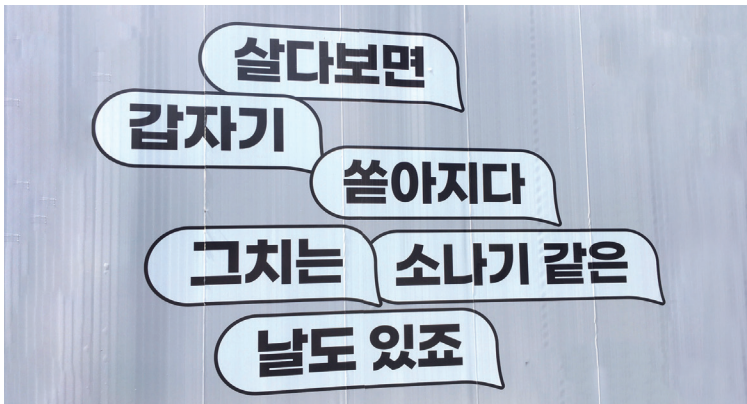
그러나, 소나기는 반드시 그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햇살이 비추듯,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갓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글·사진 | 서현이 집사



노숙인과 함께 하는 나들이

월간 동행 영은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10월 4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욱

윤정림 이숙경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김경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 소나기가 지나간 뒤 서현이 집사

04 **생명의 말씀** | Accompany에 열정을 더하다 이승구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세 살에 시작된 찬양, 평생의 고백이 되다 박찬미 집사

10 **동행플러스** | 일본 구마모토 개신교 형성과 전개 이찬양 목사

13 **구역식탁** | 모태신앙인 딸이 준 믿음의 선물 김은정 집사

15 **신앙의 유산** | 여호와와 나의 목사 호정순 은퇴권사

18 **소식&나눔** | 시원한 사랑의 커피 나눔 신요한 목사

| 여섯 번째 성경 필사 이택원 은퇴장로

| 제352회 국제전도폭발 임상훈 권사 김재원 집사

| 3교구 산상기도회 김명희 권사

| 집수리 봉사단 이재겸 성도, 편도옥 성도

|故 이남재 은퇴안수집사 교회장 이종원 은퇴안수집사

| 믿음과 사랑으로 빛은 한가위 최윤호 장로

25 **청년마당** | 필로스팀, 노숙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송도현 청년

| 뮤지컬『동서남북』 연미선 청년

27 **선교현장** |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이우진, 서보경 선교사

29 **슬기로운 교회생활** | 성찬, 주님의 사랑을 누리리는 자리 진윤규 목사

30 **생활노트** | 갑자기 쓰러지는 실신에 대해 알아보자 박주형 집사

32 **뒤표지** | 10월 목회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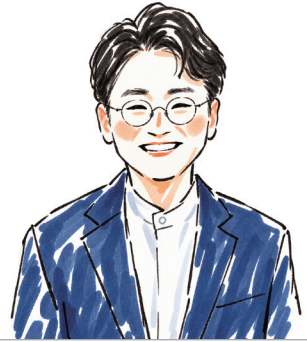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Accompany에 열정을 더하다

[히 10:24-25]



이승구 담임목사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식적인 동행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만, 서로의 삶에는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매주 같은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지만, 정작 내 옆의 지체에게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마음에 어떤 영적 씨름과 상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2022년, 영은 BASIC의 두 번째 주제는 ‘Accompany, 영은 함께 가다’였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주제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동행을 끝까지 지

속하게 하는 거룩한 열정은 어디에서 올까요?

1. 돌아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히 10:24)

‘돌아보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뿐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마치 연구하듯 자세히 살펴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열정은 상대방의 말 한 마디를 귀담아 듣고, 평소와 다른 표정을 알아차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는 지체의 안부를 묻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는 일, 이것이 힘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설교 영상보기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찬성했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으며,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행 9:26)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습니다(행 9:27).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핀 뒤 공동체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바나바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돌아보는 열정은 상대방의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행하시는 은혜를 살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살핍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의 형편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 격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격려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약해진 심장에 충격을 주어 맥박을 다시 뛰게 자극하는 의학적인 맥락을 지닙니다. 즉 격려는 영적 매너리즘과 냉담에 빠진 지체의 영혼에 불꽃이 튀도록 자극하는 ‘거룩한 충격 요법’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고, 믿음이 익숙함으로 바뀌며, 사랑이 형식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거룩한 자극입니다.

격려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비방과 환란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마주한 사

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존의 열정에 사로잡혀 남을 돌아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갇힌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다시 사랑의 자리로 세울 수 있는 영적 자극이 바로 격려하는 열정입니다.

격려는 ‘선행’으로 내달리게 합니다. 여기서 ‘선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마음속으로 착한 생각을 품는 것이나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 정도의 소극적 태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생명과 유익을 전달하는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뜻합니다. 격려하는 열정은 마음이 닫힌 자를 찾아가고,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고, 굶주린 이웃의 식탁을 채우며, 억울한 자의 곁을 지켜 주는 자리로 과감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격려하는 열정은 머리로 묵상하는 경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사랑이 손과 발을 통해 흘러나오게 합니다. 말씀들을 들었다면 행동하게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나누게 하고,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하게 합니다. 내 안에 붙은 열정이 다른 사람을 살

리는 열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격려하는 열정입니다.

우리의 격려하는 열정이 주저앉은 지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사랑과 선행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룩한 격려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모임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외부 박해와 내적인 영적 나태함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슬그머니 안전한 자리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이탈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공동체와의 거리를 만들며, 그 거리가 결국 신앙의 온도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지만, 함께할 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서로의 영혼을 깨우

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권하여” 라고 명령합니다. ‘권하다’는 ‘곁에’를 뜻하는 ‘파라’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귀에 대고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이름과 뿌리가 같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듯, 히브리서 기지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심장으로

로 지체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합니다. 서서히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체를 버려두지 않고 그의 메마른 삶의 자리로 직접 발걸음을 옮겨 곁에 서는 일, 그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고 힘 없는 차가운 손을 맞잡아 주는 일, 그것이 ‘찾아감의 열정’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서로를 붙들기 위해 모이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임의 열정이 살아나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풍파를 함께 건디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Accompany의 열정으로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며,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행이 형식적인 동행에 머물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기도를 알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살에 시작된 찬양, 평생의 고백이 되다



박찬미 집사
(갈릴리 찬양대 총무)

영은교회는 제게 집과 같은 곳입니다. 양가 조부모님께서 섬기셨고, 부모님은 영은교회 교회학교에서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세 살 때 유아부 성탄축하발표회에서 사회를 보는 영광이 남아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식구들도 늘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대학생 때는 여호수아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인후염으로 한 달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면 평생 찬양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한 달 뒤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깨끗이 돌아왔고, 전보다 더 맑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생 찬양하겠다고 결단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년이 된 뒤에는 갈릴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갈릴리 찬양대가 창단되고 4부예배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병찬 목사님이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이 있는 4부예배에는 새벽까지 장사하고 오시는 분,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공동체에 적응해 가는 분, 오전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다 오후에야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중이 많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희 찬양대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던 2023년부터 갈릴리 찬양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곳이라 처음에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장님과 대원들 덕분에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창단 때부터 자리를 지켜오신 분도 있고, 이곳에서 처음 교회 봉사를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양

연습과 4부 예배가 다른 친교 모임 시간과 겹칠 때가 많아, 저희는 찬양대 안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젊은 부부들도 함께하여 한층 활기가 돋습니다.

사실 저는 예민하고 소리에도 민감한 편이라, 예전에는 찬양 중 실수가 들리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원들이 각자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실수보다 그 마음이 먼저 보였고,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표현을 살갑게 하는 편은 아닌데도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제가 총무이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주시고, 새로운 제안에도 기꺼이 함께해 주십니다. 요즘은 연습을 시작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있어 갈릴리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라고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인사가 연습 시간을 더 따뜻하게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픈 대원들이 많아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는 분, 갑작스러운 질환과 부상으로 회복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던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받는 동안 잘 견딜 힘을 얻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와 다시 함께 찬양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도 오래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 제가 집처럼 여기는 영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박영길 안수집사와 어머니 채성애 권사와 함께
갈릴리찬양대 봉사

갈릴리 찬양대와 4부예배가 2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대학생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고 평생 찬양하며,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개신교 형성과 전개

- 구마모토 밴드를 중심으로 -



이찬양 목사

일본 개신교사에는 한국 교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밴드’(バンド, band)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밴드는 메이지 초기 특정 선교사와 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인 비교적 결속력 있는 신앙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일본 초기 개신교의 정신적 원류로 요코하마 밴드, 구마모토 밴드, 삿포로 밴드가 거론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교육2부(청년부) 영은문화아카데미의 〈블록 세미나: 일본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의 주요 탐방지 가운데 하나였던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구마모토 밴드와 이 지역의 개신교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구마모토번(熊本藩)¹⁾은 메이지 유신²⁾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치 질서에 편입

되었으나, 사쓰마번·조슈번·도사번·히젠번 등 유신을 주도한 번들에 비해 근대화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이에 구마모토번은 근대 국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871년 구마모토 양학교를 설립하였다. 양학교는 영어를 매개로 수학, 천문학, 자연과학, 서양 철학 등 서양의 근대 학문을 교육하던 기관이었다.

구마모토 양학교의 교장으로 미국인 리로이 랜싱 제인스(Leroy Lansing Janes, 1838-1909)가 초빙되었다. 제인스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에서 교육 받았으며,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육적 배경과 군 경험을 바탕으로 웨스트포인트식의 체계적인 교육

1) 일본사에서 번(藩)은 에도 시대 다이묘가 지배하던 영지와 그에 수반된 재정·행정 체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 번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으며, 오늘날 하나의 현에 가까운 크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도 있었다. 구마모토번은 비교적 규모가 큰 번에 속하였으며, 에도 시대에는 호소카와 가문이 지배하였다. 구마모토번의 영지는 오늘날 구마모토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였다.

2)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은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가 형성된 정치·사회적 변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1868년의 왕정복고를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그 전후의 정치 개편과 근대화 정책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메이지 이후 일본은 서양의 제도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마모토 양학교와 같은 근대 교육 기관도 설립되었다.

과 영국 럭비스쿨(Rugby School)이 추구했던 인격 교육을 결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제인스는 높은 수준의 규율과 학업 성취를 요구하는 엄격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중도에 탈락하였지만, 끝까지 남은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제인스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다. 이러한 신뢰는 이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제인스 저택

제인스는 구마모토 부임 초기에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 기독교 포교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리시탄 금령이 해제된 이후, 제인스는 부임한 지 3년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매주 토요일에 열린 성경 연구 모임에는 곧 30~4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영어 성경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었으며, 모임은 제인스가 기도로 마무리했다. 제인스의 자택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계속되면서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백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영어 성경을 직접 읽고 배우는 과정에서 복음을 이해하였으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876년 1월 30일 주일, 구마모토 양학교 학생들이 구마모토 외곽의 하나오카야마에 모이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기도회를 열고 「봉교취의서」를 낭독한 뒤 이에 서명하였다. 당시 이들은 대부분 십대 후반에서 스무 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인물은 만 12세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봉교취의서」에서 “우리는 일찍이 서교를 배우며 조금 깨달은 바 있고, 그 후 이것을 읽는 가운데 더욱더 감동하며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마침내 이 가르침을 황국에 선포하며 백성의 몽매함을 크게 깨우치고자 한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받아들인 신앙을 일본 사회에 전하겠

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이 하나오카야마 결맹은 이후 구마모토 밴드로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구마모토 밴드에서는 이후 일본 개신교와 근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으로 목사와 신학자로 활동하며 도시샤 총장을 지낸 에비나 단조, 도시샤 총장을 지낸 코자키 히로미치, 언론인·평론가·역사가로 활동한 도쿠토미 소호 등이 있다.



하나오카야마 봉교비

하나오카야마에서의 공개적인 신앙고백은 곧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873년 기리시탄 금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가족과 학교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일부는 감금, 자

결 권유 등의 박해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제인스는 학교를 떠났고, 구마모토 양학교도 폐쇄되었다. 이후 상당수의 학생은 제인스의 조언에 따라 도시샤로 옮겨 학업과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79년 6월 도시샤의 첫 졸업생 15명은 모두 구마모토 밴드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이후 목회와 신학, 교육, 언론,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근대 일본 개신교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0세기 구마모토 개신교의 형성과 전개는 선교가 일상의 소명에 대한 충실함과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적 신앙 그리고 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인스는 선교사가 아니라 교육자로 초빙되었지만, 자신의 직무에 성실히 임하며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자택에서 시작된 소규모 성경 공부는 청년들의 신앙고백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이후 목회와 신학, 교육,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구마모토 개신교의 역사는 개인의 신앙과 말씀 공동체, 공적 실천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지속적인 교회사적 흐름으로 발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모태신앙인 딸이 준 믿음의 선물



김은정 집사
(303구역)

“자식에게만큼은 모태신앙을 만들어
줘야겠다.”

김은정 집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고 어린 김 집사는 종교에 이에 관심이 없었다. 크리스마스 날에 친구들 따라 교회에 한두 번 가본 것이 전부였다. 중3 때 영은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을 때도 교회는 그저 하나의 빌딩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성인이 된 어느 날, 친구가 이끌어 순복음교회에 가봤고, 직장 다닐 때는 지인을 따라 제자교회에도 갔었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두 곳 모두 교회 내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교회로 발이 향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꼭 다녀야겠다’라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는 ‘내 아이만큼은 꼭 모태 신앙으로 키워야겠다’라고 결심했다. 이후 아이를 가졌을 때 만삭인 채로 신혼집 근처의 교회에 출석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제법 큰 교회였고 성도도 많았는

데 김 집사의 귀에는 말씀이 모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작게 들렸다. 아마도 배 속의 아기가 엄마를 영은교회로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

딸(정윤혜)이 네 살 되던 해에 김 집사는 아이를 영은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당시 가족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에, 김 집사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녀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렇게 윤혜는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영은유치원과 영은교회에 다녔다. 교회에 다니는 동안 외동딸인 윤혜에게 친형제 자매 같은 언니 오빠들이 생겼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대로 딸 윤혜는 그렇게 모태신앙의 뿌리를 내렸다.

엄마의 신앙을 성장시킨 딸의 헌신

2004년부터 김 집사 역시 교회에 가끔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세례도 받았다. 딸이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교회를 다니려면 영은교회에 나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었다. 딸의 성장과 함께 엄마인 김 집사의 신앙도 나날이 깊어졌다. 허남기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로웠고, 고일호 목사님 시절에는 신앙이 부족 성장했으며, 이승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생활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은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점점 쌓이는 것을 느꼈다.



딸 윤혜와 함께

3교구 담당 정성훈 목사님이 올해 교구 대심방 때 주신 말씀은 김 집사의 가정에 꼭 필요한 구절이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딸 윤혜는 정성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금요심야기도회 때 말씀의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기

도 했다. 딸은 찬양팀 활동에 이어 현재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지만, 엄마인 김 집사는 그동안 직장 일로 인해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다. 교회 봉사도 못 하고 여전도회 월례회에는 회비만 보낼 뿐이다. 윤혜는 그런 엄마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지만, 김 집사는 ‘딸이 저토록 열심히 하는데, 엄마인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구나. 주일만큼은 꼭 지켜야지’라며 스스로 다짐하곤 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개인 가게를 열면서 매 주 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장례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얼마 전에는 3교구 산상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마침 아버지의 기일 전날이었기에 기도회를 마친 후 가족들이 따로 모여 영은설악동산에 계신 아버지를 추모했다. 작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을 위해 교회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신 덕분에 장례를 순조롭게 치를 수 있었다. 더욱이 은혜로웠던 것은 당시 설악동산에 못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어 아버지를 그곳에 편안히 모실 수 있었던 점이다. 이렇듯 김 집사의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이래 온 가족이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에게 모태신앙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던 김 집사의 다짐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



호정순 은퇴권사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신앙생활

호정순 은퇴권사님은 1935년 1월 28일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에서 부친 호창수와 모친 양배 열 사이에서 1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권사님이 처음 교회를 접한 것은 열두 살 무렵이다. 교회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듣고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교회를 ‘연애당’이라 하며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 주셨다. 어느 날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길에 떨어진 1원짜리 지폐를 주워 쌀과 함께 씻었더니 돈이 쌀로 변하는 꿈이었다. 권사님은 그 꿈이 교회에 나가라는 뜻이라며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시라고 권했다. 하지만 교회에 입고 갈 옷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바느질을 배운 권사님은 며칠 밤을 새워 무명으로 어머니의 옷을 직접 지어 드렸고, 어머니는 그 옷을 입고 면천감리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산후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산상기도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큰 소란을 일으켰다. 전도사님이 성경을 들고 기도하며 악한 영을 물리쳤고, 이후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당진 면천감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60년 동안 영은교회와 동행

22살에 인종식 집사님과 결혼한 호정순 권사님은 전도사인 시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사촌의 소개로 직장을 얻어 가족 모두 당진에서 서울 문래동으로 이주했고, 권사님은 문래동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동양모직에 다녔다. 직장인들을 찾아 새벽예배를 인도하던 목회자들의 섬김을 통해 영은교회와 인연을 맺어, 1965년 4월 4일 영은교회에 등록한다. 그 날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은교회와 동행하고 있다.

호정순 권사님은 1996년 5월 12일 권사로 취임하여 2005년 12월 은퇴할 때까지 봉사부에서 교회를 섬겼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 마당에 쇠술을 걸고 나무를 때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시절이다. 수많은 성도가 함께 땀 흘리며 봉사했던 그때를 권사님은 고생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한다.



토요노방전도팀

김장도 잊을 수 없는 봉사였다. 배추밭에서 천포기가 넘는 배추를 가져와 며칠 동안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어 김장했다. 담근 김치는 설악영은교회(현 영은설악센터)에 항아리를 묻어 보관하며 교회와 기도원에서 나누어 먹었다. 김장 때마다 따뜻한 찐빵을 썰 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고(故) 고일호 목사님의 사모 이용숙 사모님의 사랑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권사님은 영은교회의 가장 큰 자랑으로 목회자들의 좋은 말씀과 성도들의 하나 된 모습을 꼽는다. “우리 교회처럼 분열이 없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없을 것”이라며 “평안하고 포근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외부인들이 영은교회의 깨끗한 화장실을 칭찬하는 것도 자랑거리로 이야기한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

권사님은 2남 1녀를 두었다. 남편 인중식 집사님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권사님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가정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평생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지켰다. 남편은 80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세 자녀는 모두 가정을 이루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권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이다. 이 찬송을 부르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같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이다. 어느 날 대심방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을 복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셨을까?” 하며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다. 이후 그 말씀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지금도 암송하며 살고 있다.

권사님은 인생을 돌아보며 “내게는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긴가, 언제 빠져나갈까?”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지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전한다. 시편 23편과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권면한다.

권사님의 신앙과 봉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노방전도에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호정순 권사님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전한 작은 전도의 말이 한 가정의 신앙이 되었고, 그 믿음은 60년이 넘는 영은교회와의 동행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이 말씀처럼 권사님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 앞으로의 길음도 영원히 인도하시기를 소망한다.

인터뷰·글 | 송경란 기자



토요노방 전도를 마치고

시원한 사랑의 커피 나눔

-우리 교회 여름 커피 나눔 행사-



신요한 목사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가장 더운 7월 말에서 8월 초, 40°C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직장인들과 주민들을 위해 영은교회가 이번 여름에도 교회 주변에 있는 직장 근처 카페에서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4개 지역 카페 ‘가젤커피(에이스하이테크시티3, 7월 30일), 텐퍼센트커피(양평역, 8월 1일), 블루삭커피(양평역, 8월 6일), 메가커피(월드메르디앙, 8월 7일)’와 협조해 진행했다. 교회 주변의 직장인들과 주민들에게 약 600여 잔의 시원한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커피 나눔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행사다. 교회 주변의 카페에 도움을 주면서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따뜻하고, 시원한 커피 한 잔의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처음에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진행했지만, 반응이 좋아 작년부터는 무더운 여름철을 추가해 1년에 총 세 번에 걸쳐 커피를 나누고 있다. 올해는 ‘PASSION, 열정을 더하다’라는 교회 주제와 함께 교회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을 전하고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랑의 커피를 전달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직장인들과 주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함께한 카페 사장들도 매우 만족해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앞으로도 계속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 성경 필사



이택원 은퇴장로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성경 필사를 마치며, 오랜 시간 부족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끈기를 허락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택원 장로의 성경 필사를 축하하며 (7월 5일 주일 오후예배)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필사가 이제 12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시작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주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는 시간이 제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의 발자취이자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사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이며,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나태하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입니다.

그동안 필사는 영어 성경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 필사는 한글 성경(현대인의 성경, 새번역성경)으로 하였으며, 2025년 초에 시작하여 2026년 5월 15일에 마칩니다. A4 대학노트 15권, 약 2,900쪽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쉬운 글로 번역된 성경이라 더욱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필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중보기도학교 과정을 수료하며 기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필사 중에는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더 깊게 이해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구원 계획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필사 성경은 지난 시간 동안 저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경험한 말씀의 위로와 기쁨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제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집사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제352회 국제전도폭발 임상훈련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제352회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 훈련은 성경적 전도 원리로 교인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무장시키고, 교회가 전도에 힘쓰도록 돕는 훈련이다. 이번 임상훈련에는 총 44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여 강의와 시범, 전도 실습, 복음 제시와 평가 등을 통해 전도의 원리를 배우고 익혔다. 특히 임상훈련은 일반적인 세미나와 달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훈련으로, 12주 과정을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료하는 과정이다. ‘은혜·인간·하나님·그리스도·믿음’의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을 익히고 실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로 세워졌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 16:15)

이 말씀처럼 이번 훈련은 복음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천의

시간이었다. 훈련생들은 복음을 배우고 암기하며 직접 전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했다.

박대원 목사와 한진구 목사가 지도 목사로, 서상희 안수집사가 팀장으로 섬겼으며, 식당봉사팀, 간식준비팀, 중보기도팀, 시범지도팀, 훈련자관리팀, 방송팀, 차량지원팀 등 44명의 훈련자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44명의 훈련생이 훈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으며, 전도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 이번에 배운 복음이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계속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제352회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고 44명의 훈련생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3교구 산상기도회 예배를 마치고

3교구 산상기도회 “모두가 상 받은 은혜의 날”

3교구 산상기도회가 9월 5일(토) 영은설악센터에
서 있었다. 교구 담당 정성훈 목사를 비롯해 76명의
교구원이 참여했다. 가평의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교구 식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영은설악센터에 도착한 성도들은 먼저 1층 예배실
과 상층 기도실 및 전망대를 둘러봤다. 2024년 10월
27일 헌당예배를 기점으로 영은설악센터는 교구별
산상기도회와 부서별 기도회 등 교인들의 영성 훈
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11시에 예배실에 모인 성도들은 정성훈 목사님
의 인도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했다. 정 목사님
은 “들으시는 하나님”(시 66:16-20)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
리를 들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강조했다. 나
자신과 가정, 3교구와 구역 식구들, 교회와 일터, 이

웃과 나라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1부 예배 후 1층 홀에서 조별로 앉아 식사했다. 다
양한 뷔페 음식은 주변의 어느 식당보다 풍성했다.
오랜만에 만난 구역 식구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 식
사하며 담소를 나눴다. 식사 후 모두 예배실에 모여
8개 조로 나뉘어 앉았다.

친교의 시간에는 조별 응원과 조원 소개를 하며 모
두가 하나가 됐다. 뜨거워진 열기 속에 조별 낱말 맞
추기 게임을 했다. 손짓, 발짓, 몸짓으로 낱말 맞추
기를 하며 모두 한껏 웃었다. 이날의 최고조 게임
은 ‘달란트 보물 찾기’였다. 영은설악센터 곳곳, 영
은동산 꼭대기까지 오르며 달란트 보물을 찾았다.
‘237 달란트’를 찾은 4조가 대망의 1등 ‘총성상’을
받았다. 2등을 한 3조는 ‘착한상’, 3등 6개 조는 ‘달
란트상’을 받았다. 3교구 산상기도회는 예수님 안
에서 모두가 상 받은 은혜의 날이었다.

글 | 김명희 기자



[영은집수리봉사단]

수리가 끝났을 때의 놀라운 감격과 감사

작년 9월에 영은교회 출석을 시작하고, 교육 등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의 수고와 섬김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섬길 수 있을까’를



이재겸 성도

고민하던 차에, 올해 집수리봉사단 모집 안내를 발견했다. 그동안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지만,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름을 적어냈다. 집수리 봉사는 공정별로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을 처음 해보는 나로서는 제 역할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2호, 3호 사역에 참여했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한 요즘 시대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을 깨달았다. 집수리 봉사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 몸은 고되지만, 수리가 끝났을 때의 변화를 보면 놀라운 감격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동행하는 돌봄’의 대명사인 집수리 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땀 흘리고 돌아오는 길의 뿌듯함

지난해 영은교회에 등록한 뒤, 어머니께서 교회 봉사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셨다. 솔직히 대단한 결심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 어머니 말씀을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편도욱 성도

로 나간 것이 집수리봉사단과의 첫 인연이 되었다.

처음 나간 현장은 양평동의 꽤 오래된 빌라였다. 3월의 어느 토요일, 나는 오후 반에 합류했는데 막상 손을 대보니 할 일이 적지 않았다. 베란다에 4단 앵글 선반을 다는 일을 거들고, 화장실 문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도왔다. 낡은 싱크대를 들어내고 새 싱크대를 들이는 일도 함께했다. 손에 익지 않아 서툴렀지만, 곁에서 단원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덕분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봉사하며 느낀 것은, 누군가의 집이 조금 더 살 만해지는 데에 내 작은 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거창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땀 흘리고 돌아오는 길의 뿌듯함은 쉽게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다음 현장을 기다리게 되었다.



故 이남재 은퇴안수집사 교회장

故 이남재 은퇴안수집사 교회장 입관예식이 이승 구 담임목사 집례로 8월 30일 주일 오후 4시에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다. 이남재 안수집사는 1953년 4월 21일, 7남 1녀 중 7남으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했다. 1981년 김순화 권사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었다. 집사님은 1981년 9월 1일 영은

교회 교인으로 등록했고, 2010년 4월 18일 영은교회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다 2023년 12월 31일에 안수집사직을 은퇴했다. 집사님은 2026년 8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아버지 품에 안겼다. 유가족으로 부인 김순희 권사와 아들 이은수 성도가 있다.

조사(弔辭)

사랑하는 이남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셨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작은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 헌신과 사랑은 우리 공동체의 귀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육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분의 믿음과 발자취는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하며, 남은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종원 은퇴안수집사



최윤희 장로

함께한 가족(최윤희 장로 기준): 어머니(권순자B 은퇴권사), 누나(홍순성 목사, 최현 사모, 정표), 본인(최윤희 장로, 장진아 권사, 유진), 동생(최윤석 안수집사, 마명숙 권사, 안진, 진서, 진도), 반려견(콩이)

믿음과 사랑으로 빛은 한가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を 맞아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명절 전날,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른들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젊은 세대도 기쁜 마음으로 손을 보탤었다. 전과 나물 등 다양한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어났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도우며 세대와 세대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명절 아침, 거실에 둘러앉아 성경책과 교회에서 제공한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펼쳐 둔 가족들의 모습에는 경건함과 단란함이 가득했다. 할머니부터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귀여운 반려견까지 함께

모여 드린 가정예배는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서로의 평안을 축복하는 정겨운 시간이었다. 화려한 명절 행사가 아니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충분했다.

무엇보다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번 추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추석 명절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앞으로도 명절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추석 풍경이다.



노숙인들과 함께 만든 기도 현수막

모두에게 열린 예배, 경계 없는 사랑을 나누다

- 필로스팀, 노숙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

9월 5일(토) 영은교회 청년부 필로스팀은 보라매 공원에서 노숙인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나들이 사역을 진행했다. 사역은 푸른 풀밭에서 드리 는 예배로 시작됐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을 조명 삼아 기타와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다. 돛 자리에 앉아 설교에 집중하는 노숙인들의 모습은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 며 남들보다 조금 더 지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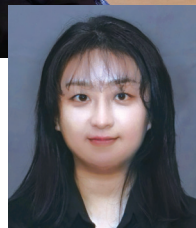
공원에 있던 시민들이 예배를 지켜보며 찬양에 동참했다. 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사역은 노숙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다. 특히 함께한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우리

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났다. 나뭇잎이 지붕이 되고 돛자리가 바닥이 되지만, 벽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예배에는 벽이 없었다. 누구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누구나 예배에 함께할 수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현수막을 꾸몄다. 앞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렸다. 마치 친한 친구와 나들이를 온 것처럼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무척 가볍고 즐거운 교제가 이어졌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귀 기울여 듣고 정성껏 적으며 마음을 나눴다. 하얀 현수막은 다양한 색깔로 물들었고, 그보다 더 다양한 기도 제목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사역을 통해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사역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송도현 (청년1부)



연미선 (청년 2부)

뮤지컬 「동서남북」, 하나님 사랑을 본받은 자의 사랑

지난 6월 28일 주일, 청년부 예배를 뮤지컬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한 문화 예배로 드렸다. 「동서남북」은 예배가 금지된 북한 땅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려는 지하 교회 교인들과 그들을 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한 크리스천의 이야기다. 극 중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추하고, 어떤 상황 이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거창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극을 썼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답하고 싶다. 북한에 관해 써보자는 권유가 있었을 때쯤, 마침 반복 재생해서 듣던 찬양이 하나님께서 생의 끝자락에 선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써놓고 보니가 주인공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과 닮아있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쓰인 데는 분명한 하

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더 많은 성도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에 흔쾌히 추가공연까지 하게 됐다. 뮤지컬이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막바지로 달려갈 때쯤 가장 바랐던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을 본받은 자가 타인을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인가. 조금은 극적일지라도 뮤지컬 「동서남북」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바다. 가깝게는 주변부터 넓게는 북한과 이 땅 위의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세상이 언젠가 그들에게도 밝혀지기를 바란다.

당연히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장장 6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또 열정으로 참여해 준 청년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도 참 감사하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이우진, 서보경 선교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약 5:7-8)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캄보디아의 모든 영혼이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자이신 교회와 교우님들께 축써참빛교회 선교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1. 성경 암송 대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에서는 나리, 스레이또잇, 다리야, 나른, 초워, 스레이넛, 쏘카, 모니니웃, 보파, 세이하가 참여했고, 중·고등부에서는 쏙리, 간냐, 다니엘, 스레이멧이 참여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가 긴장해서 요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른은 나이가 제일 어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해당 구절을 암송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로 아동부에서는 스레이또잇과 나른, 중·고등부에서는 쏙리와 다니엘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5-16) 이 말씀이 교회학교 모든 아이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티어렛 전도사 신학교 1학년 이수

티어렛 전도사님이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시엠립, CPTIS) 1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 거리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이수했습니다. 학교가 멀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매일 예배와 찬양,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하다고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티어렛 전도사님이 10월에 시작하는 2학년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를 잃고, 안전을 위해 남쪽 수도 프놈펜이나 시하누크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세 가정이 떠나며 교회학교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휴전 중이지만 국경지대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전도 여행에 참여한 티어렛 전도사

3. 중요 기도 제목

축서참빛교회는 캄보디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회학교 아이의 부모 중 태국 국경이나 태국 현지에서 일하는 부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교전 이후 부모들이 일자리

기도 제목

- ① 캄보디아와 태국 간 분쟁이 속히 종식 되기를
- ② 캄보디아가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를
- ③ 교회학교,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청·장년부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 ④ 티어렛 전도사, 판·판뜨라이 교사, 트은 경비가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 ⑤ 선교사 부부가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 건강하기를

성찬,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



진윤규 목사

종교개혁자 칼뱅은 참된 교회에 있어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이고, 둘째는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대로 시행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지목된 성례, 그 안에서 성찬은 교회의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인 성찬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때로는 성찬을 교회 안에서 예식이나 설교 뒤에 이어지는 특별한 순서로만 생각하기도 한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습관처럼 성찬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교회에 주신 은혜의 자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이다. 그 기억은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의 자리에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먼저, **성찬을 받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그것에 감사하는 고백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여야 한다. ‘주님, 저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성찬을 받을 때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한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신 지체임을 배우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은혜는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 건네는 안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같은 작은 걸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소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실신에 대해 알아보자



박주형 집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멀쩡하던 사람이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구나 당황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은 크게 (1)실신, (2)발작(간질), (3)심정지로 나뉜다. 오늘은 실신에 대해 알아보고 발작, 심정지 증상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간단히 알아보겠다.

실신이란?

실신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어 나타나는 의식소실이다. (1)갑작스럽게 발생한다. (2)지속시간이 수십 초 이내로 짧다. (3)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회복된다. (4)의식이 회복된 뒤에는 불편한 증상이 없다. 인구의 30%가 한 번쯤 경험하며 응급실 총 환자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실신의 대부분은 양성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수이다.

미주신경성 실신

(혈관미주신경성 = 혈관억제성 = 심장신경성 = 신경매개성)

미주신경 실신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특정 상황을 만나게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뇌혈류가 줄어들고 의식을 잃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과도한 긴장, 통증, 공포, 사람 많은 환경, 덥고 밀폐된 공간, 배변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아침 조식 시간에 서 있다가 쓰러지는 친구, 사람 많은 예배당에서 육아로 지친 아기엄마가 쓰러지는 경우, 혈액을 보면 실신하는 젊은 여성 등이 흔한 예이다.

실신 발생 전 머리가 텅 빈 느낌, 시야 좁아짐, 메스꺼움, 힘 빠짐, 식은땀 등의 전조증상이 발생한다. 실신 자체는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문제는 2차로 발생하는 외상이다. 뇌출혈, 안면손상 같은 상해를 입게 되므로 전조증상을 느낀다면 무언

가를 붙잡고 버티지 말고 즉시 앉거나 누워서 낙차를 줄여 머리,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립성저혈압

익숙한 이름이지만 실신의 10% 정도이다. 쏘그려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하지로 몰렸던 혈액이 상체로 충분히 올라오지 못해 발생한다. 미주신경 실신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립성 저혈압도 위와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나기에 같은 방법으로 외상을 예방해야 한다. **천천히 일어나기, 충분한 수분 섭취로 예방이 가능하다. 기립성 저혈압을 자주 겪는 사람에게는 압박스타킹 착용이 도움 된다.**



심장성 실신

심장성 실신은 실신 유형 중 유일하게 사망과 연관이 있고 5년 이내 사망률이 50% 정도로 위험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심장의 구조적 문제나 부정맥으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뇌혈류가 급감하여 실신한다. 전 연령에서 발생하지

만, 노인에게 흔하다. 위의 두 질환과 달리 전조증상이 없고 흉통이 동반되고, 누운 자세에서 발생했다면 심장성 실신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른 질환과의 구분

발작(간질, seizure) 증상이 발생하면 안구와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며 몸이 경직되고 팔다리를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며 거품처럼 침이 고이거나 대소변을 보기도 한다. 발작 종료 후에도 졸리거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정지는 겉으로만 보면 실신과 유사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할 때 가슴과 배가 오르고 내리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쓰러진 사람을 행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이 금세 돌아왔다는 미담 중 대부분은 사실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었던 실신이기 때문에 호흡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실신 환자를 목격한다면

먼저 119 신고 후 의식, 호흡을 확인한 뒤 조이는 옷이나 벨트는 풀어주고 다리 밑에 무언가를 받쳐 주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을 확보해 주면 좋다. 1~2분 이내 회복하더라도 누운 채로 119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치 및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0월 목회일정

2일(금) 1교구 산상기도회

2일(금)~10일(토) 청년부, 더누림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4일(주) 북한선교주일, 제직회총회, 갈렙 정기연주회

5일(월)~6일(화) 당회정책 세미나

10일(토) 세례문답식

11일(주) 세례성찬성례전, 5교구 헌신예배

16일(금) 2교구 산상기도회

17일(토) 교사대학1

18일(주) 신임제직추천, 더블리스 챔버라이어 공연

22일(목) 중보기도헌신자 기도회

24일(토) 교사대학2

25일(주) 종교개혁 기념주일, 영은30대 장학헌금

27일(화) 제 137회 영등포노회

30일(금) 연합구역예배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 허남기

담임목사 | 이승구

부목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도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직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오후 3:00	7층 친교1실
	젊은부부 어울림 1부	오후 12:10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오후 3:00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5개월-3세	1층 영아부실
유아부	4-5세	2층 유아부실
유치부	6-7세	2층 유치부실
유년부	초등 1-2학년	5층 유년부실
초등부	초등 3-4학년	5층 초등부실
소년부	초등 5-6학년	5층 소년부실
꿈자람부	4-13세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